

# “국민정서 반하는 도로명 주소 되레 불편”

전남대 ‘제1차 통합·소통 위한 국어정책 포럼’서 주장

## 역사·전통 무시한 탁상행정 피해액 수조원 달해 지명을 문화유산으로 여기는 선진국과는 괴리감

최근 전면 시행된 도로명 주소 사업이 국민 정서와 무관하게 강행되면서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국립국어원 한국어문화술단 체연합회 주최로 전남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2014년 제1차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손희하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손희하 교수는 ‘현행 도로명 주소의 제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4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는 물론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 교수는 도로명 주소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국민이 기억하고 사용하기가 한층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백년간 내려온 역사와 문화전통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구는 도로를 중심으로 인공적으로 계획해서 도시가 발달했으나, 우리나라는 지방은 물론 서울 같은 경우도 자연 지형에 따라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한 만큼 도로명 주소는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것이다.

손 교수는 “지명은 생활 문화와 자연 환경을 반영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길 찾거나 주소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도로명 주소 정책은 국민 기억, 심적 고통 비용, 문화 향유 소멸 등을 감안하면 피해는 수조원이 넘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명이 단순한 길 찾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현재 선진국 등 다른 나라나 유엔 등의 기구에서는 지명을 문화유산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도 도로명 주소를 쓰는 곳이 더 적은 뿐만 아니라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짧은 거리 이름을 사용해 기억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현행 도로명 주소 정책의 문제점으로 ▲문화 역사면-전래 고유 문화 파괴 및 망실, 문화 공동체 파괴 우려, 우리와 외국 문화 차이 간과 ▲정보 기억 인지·저장면-도로명 주소가 읍절 수 과다로 인지하기가 더 어렵고, 기억해야 할 정보 양 더 많아지고 체계가 더욱 복잡 ▲문화 향유 추구면-자연 지형을 따라 골목이 형성된 우리 현실 여건과 괴리 등을 지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세계수소대회’ 성공개최 친절·질서 캠페인

광주국제행사시민협

오늘 광천동터미널서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0회 세계수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손님맞이 친절 질서 정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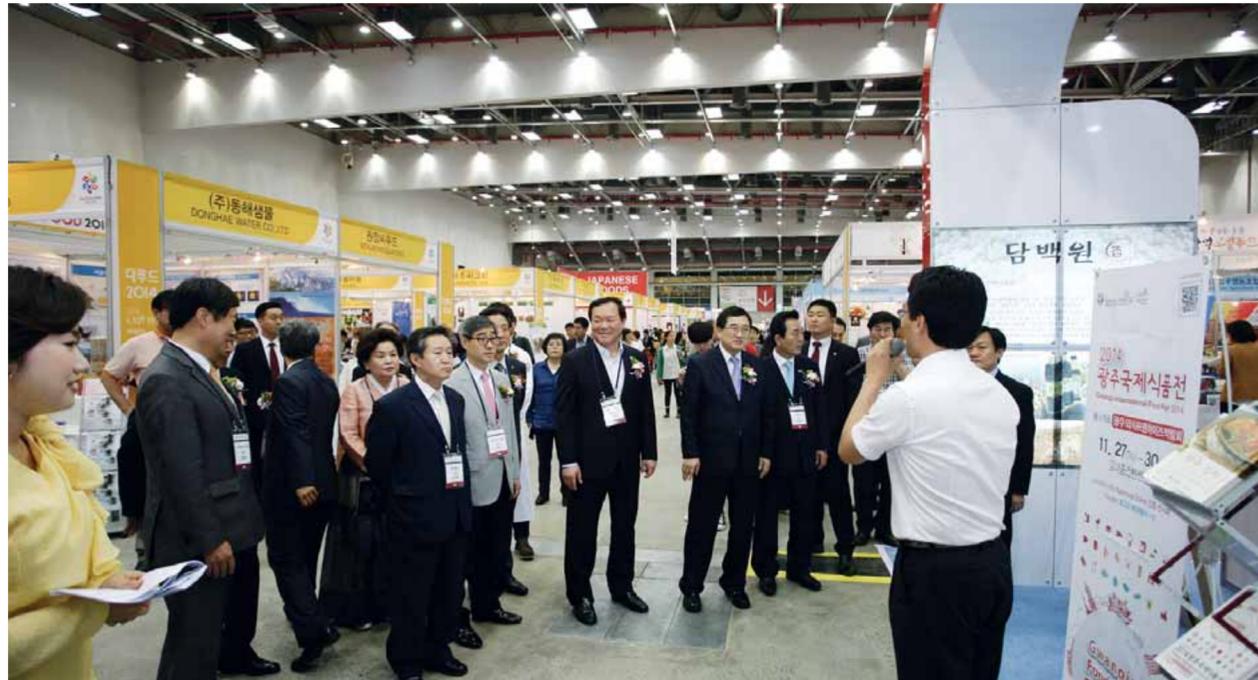
시민협의회는 세계수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3일 광주 4대관문의 하나인 광천동터미널에서 도시정결결과위 소속 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손님맞이 친절 질서 캠페인 및 정결운동을 벌인다.

이날 참가자들은 미래 신재생에너지

학술대회인 세계수소에너지대회에 60여개국 관련 전문가 3000여명이 광주를 방문함에 따라 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친절 질서 캠페인을 벌이고, 광천동터미널 인근 주변 정결활동을 벌인다.

시민협의회는 이에 앞서 시민밀착형 홍보 일환으로 광주시 94개동과 5개구 모범음식점 200곳 등 290여곳에 제20회 수소에너지대회 일정 등 국제행사 내용을 담은 배너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오병현 사무처장은 “광주국제U대회가 이제 4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국제U대회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올해 열리는 세계수소대회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국제대회 행사부터 성공을 거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12일 대구시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14대구국제식품전(DAFOOD 2014)에 참석해 광주우수 농식품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 ‘올해 고용 우수기업’ 뽑는다

‘일자리 창출’ 뛰어난 기업 발굴

인증서·현판 교부 등 인센티브

광주시가 일자리창출에 뛰어난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4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시는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전반의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간 인센티브 16종이 지원된다.

고용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핵심 전략

산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3년 6월~2014년 5월)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근로자과건·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의해 고용이 확대된 기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7월4일까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일자리창출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시 일자리창출과(062-613-3582).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U대회 스포츠의류 공식 후원

### 우선 협상대상자 (주)블랙아크 선정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스포츠의류 부문 공식 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주)블랙아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블랙아크와 유니폼 제작 및 후원 사항 등에 대해 세부 협상을 거쳐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블랙아크는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면

대회 명칭 및 마스코트를 활용한 마케팅 권리와 스포츠의류 분야 유니폼 우선 공급권을 갖는다.

블랙아크는 성화 봉송 주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착용할 점퍼, 티셔츠, 모자, 가방 등 대회 공식 스포츠의류 유니폼 16만 여점을 제작, 공급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대구국제식품전에 ‘달빛동맹특별관’ 개관

김치·막걸리·장류 등 우수농식품 홍보

광주시가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와의 식품산업 분야 상생 발전을 위해 대구국제식품전에 홍보관을 개관했다.

광주시는 12일 “이날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14대구

국제식품전(DAFOOD 2014)에 ‘달빛동맹특별관(광주 우수농식품 홍보관)’을 구성해 참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운영하는 ‘달빛동맹특별관’을 통해 광주김

치 공동브랜드 ‘김치 光’과 우리밀, 과실주, 막걸리, 장류 등에 대한 제품 전시, 시식 등 다양한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홍보관을 통해 올해로 21회를 맞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와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광주시의 각종

행사도 홍보중이다.

대구시도 오는 11월27일부터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4광주국제식품전’에 ‘달빛동맹특별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배중훈 광주시 생명농업과 식품산업담당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영호남 대표도시인 광주와 대구의 식품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옷 맞춤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옆 두레쥬르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뽀뽀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